

국회 찾아 전북 경제 현안 건의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전북 경제 활성화 위한 현장 목소리 국회의원들에 직접 전달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가 전북 경제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회를 직접 찾았다. 김정태 회장, 안준업 부회장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 박희승 의원, 이성운 의원 등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을 잇따라 만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각종 규제와 입법 움직임이 지역 경제와 기업 생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정태 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운 의원의 면담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유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가 전북 경제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회를 직접 찾았다.

조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사회

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과 안호영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는 전북 경제의 구조적 한계

가 거론됐다. 김정태 회장은 전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내총생산(GRDP) 12위, 재정자립도 23.5%로 전국 최하위라는 현실을 짚으며, 재정 여력 부족이 기업 지원 인프라와 정책 투자에서 수도권과 대도시와 비해 뚜렷한 열세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산업 기반 약화가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전북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번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중앙 정치권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며 “불황의 늪에 빠진 기업의 지원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가축 유전자 검사 국제 인증’ 받았다

국립축산과학원, 세계 104개국 통용 유전정보 검사기관 등록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경남 함양군)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환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9일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생물학적 시험·유전자(09.007)’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받은 것을 기념해 열렸다.

우리나라 가축 유전자 검사 분야에서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선정된 최초 사례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에서 부여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 표준에 따라 검사 정확도, 기술력, 품질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2024년부터 인증 작업을 준비한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전문 인력 확보와 검사 장비 구축, 품질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문서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과하고 최종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생물학적 시험·유전자(09.007)’ 분야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유전정보(DNA)를 분석해 품종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러한 유전자 분석 기술은 가축의 품질을 관리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인증으로 이 시험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104개국에서 그대로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는 물론, 국제 공동연구 및 유전자원 교류 협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은 우리나라 축산 유전자원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가축 유전자원의 분자생물학적 특성 평가와 보존 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동물 유전자 검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올 상반기 벤처투자

5.7조원 · 펀드결성 6.2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5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게임 분야의 전년 동기 대비 투자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수가 2024년 상반기 1개사에서 '25년 상반기 5개사로 늘어나는 등 일부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기업당 투자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2025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은 전년 대비 8%, 민간부문은 22% 증가하였다.

민간 부문에서는 연기금·공제회와 일반법인의 출자가 전년 대비 130%, 58% 증가하여 상승세를 견인하였다.

상반기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 중 ‘퓨리오사시’와 ‘비나우’가 처음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며 투자를 유치하였다.

/오상근 기자

식품기업 투자유치 위한 IR 빌드업 데모데이 개최

바이오진흥원-전북자치도, CJ인베스트먼트 등 7개 투자사 참여... 피드백 · 투자 논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12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IR 빌드업 데모데이’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식품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넓히고, 실질적인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히 기업별 맞춤형 IR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바이오진흥원 지원을 받은 12개사는 행사에 앞서 IR 자료 제작, 스토리 라인 보완 및 피칭 스크립트 컨설팅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사업의 경쟁력과 시장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으며, 실제 투자사와의 만남에서 한층 전문화된 IR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CJ인베스트먼트, 전북창조



경제혁신센터, JB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스케일업파트너스, 인포뱅크, MYSC 등 7개 투자사가 참여해 IR 발표를 심사하고, 현장 피드백과 향후 투자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행사 이후에도 수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연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 1억 2천만 원의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데모데이를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전북 식품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투자 네트워크를 확장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식품기업의 IFS 프로그램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IR 빌드업 데모데이는 도내 식품기업이 국내외 투자시장에 도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북이 식품산업 투자유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내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발굴 및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기술 혁신형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농촌공간계획 제도 현장 전문가 육성

전북 광역지원기관, 13개 시·군 지역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전북광역지원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북도 내 13개 시·군 농촌공간 실무자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 육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역실무자와 농촌마을리더 두 부문으로 나눠 운영되며, 지역실무자 교육은 교육 참여율 및 효율 증대를 위해 8월 11~12일 이틀간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눠 실시하였다.

서부권 교육은 8월 11일(월) 군산, 익산,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등 6개 시·군 실무자 40명이 참석했으며, 동부권 교육은 12일(화) 완주,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등 7개 시·군 실무자 39명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시·군 농촌공간계획 착안사업, 농촌공간 정책의 이해와 계획 수립, 고창군 재구조화 기본계획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오상근 기자



전북광역지원기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13개 시·군 실무자들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의 방향과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실문조사를 통해 교육 효과를 분석한 뒤, 추후 심화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마을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오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면장, 이장, 주민위원장, 추진위원 등 마을 단위 리더들이 참여해 농촌공간 정책의 이해와 추진 전략을 공유하게 된다.

/오상근 기자

김제 ‘백구농협 신동진 쌀’ 회전초밥 전문 프랜차이즈 스시아인앤과 협약 체결

백구농협은 지난 12일 회전 초밥 전문 업체 ‘스시아인앤’과 초밥용 쌀 공급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공급되는 쌀은 전라북도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지평미인 신동진 쌀’로써 단백질 함량이 6~7.6%로 낮아 고슬고슬한 밥맛과 쫄쫄한 식감이 일품이고 윤기가 오래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시아인앤’은 경기도 하남시에 본

점을 두고 있으며, 2024년 238억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전 초밥 전문 브랜드로써 서울과 대구 그리고 전주 등 전국적으로 34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금년 내에 100여개의 가맹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금차 MOU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가 김제 백구농협 쌀을 맛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승환 조합장은 “이번 업무협약

(MOU)의 체결로 백구농협 신동진 쌀을 연간 500톤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농가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최근에 미국의 버지니아와 워싱턴DC에 가맹점 진출을 통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스시아인앤과의 협력으로 전북의 우수한 쌀이 스시아의 옷을 입고 세계로 진출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